

#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3월 1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21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 허정자 -

저는 언니의 전도로 은혜와진리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기로 결심하고 진리의 말씀, 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한지 어느덧 30년이 된 집사입니다. 근래에 암 투병 중 제가 낙심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저를 낮게 해주신 은혜를 간증합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설교하시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우선적인 응답은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 이치적으로 따져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데도 실제로 마음에 자리잡는 기이한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벼랑 끝 위태한 곳에서 있을 때도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을 통해서 이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가슴에서 혹이 만져지고 그 크기가 커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암 말기인가, 이대로 죽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제 마음에 큰 동요가 없었습니다. 유방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조직검사도 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악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고 게다가 임파선 전이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놀랍게도 제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암에 걸렸대요.” 하니 하나님께서 “암인데, 왜?”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 네~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의 심령에 가득히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 내가 내가 주는 평강에 대해서 묻지 않았느냐, 지금 네 마음이 어떠하냐, 바로 내가 주는 평강이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없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다.”(시편 27:3)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신유의 은총을 기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돌아온 주일에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8장 강해설교 중에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므로 구원을 얻은 사건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의심 많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상하게 저를 바라보셨는지, 다음 주일에는 목사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죽었던 딸이 곧 일어나서 걷게 된 사건 기록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고 저의 믿음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이 저에게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치료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암세포가 전파속도가 빠르고 성질이 안 좋아서 최고 횡수인 18회 항암치료를 하고 이어서 절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한 후, 후행 항암치료를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항암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12차례 항암 치료 후에 더 독한 약으로 바뀌어 투여를 하는 중에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았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 대부분 백혈구 주사를 맞고 수치를 올려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저는 교수님이 항암제 용량을 조금 낮추어 투여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의 몸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래 암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할 일은 제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먹는 것도 사망, 운동도 사망으로 알고 행하였습니다. 항암치료 중에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가 다 저와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다 끝난 요즘 다른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도와주셨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보통의 경우 항암 1~2회차 후 혈관이 숨어서 인공혈관을 심은 후에 계속한다고 하는데, 저는 최고 횡수의 항암치료를 하면서도 제 혈관으로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위, 대장,

입 점막 부위는 약해서 헐고 궤양이 생기기 때문에 약으로 그 부위를 지지기도 했었는데 저는 살짝 구내염만 한 두 차례 생기고는 멀쩡했습니다. 저와 동일한 항암제를 쓴 분은 2회차에 발과 피부가 심하게 갈라지고 염증이 생긴 부작용으로 인해 투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항암치료 1회 후에 저는 혹의 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여 확인해보았는데 그 컸던 혹이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3회 후 CT를 찍고 나서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항암치료는 18회 다 마칠 때까지 60%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 정상인데 저는 3회차에 이미 90%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며 놀라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방절제술 후 방사선 치료 예약을 하려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치료가 매우 잘 되어서 방사선 치료와 후행 항암치료는 안 해도 되고, 그만 치료를 종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제가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의 긴 항암 치료로 인하여 제 마음속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섭리하여 주셨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치료 과정을 것처럼 잘 이겨낸 이유를 또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아프고 독한 치료를 받는 중에도 마치 물 댄 동산처럼 저의 심령에서 샘솟듯 기쁨이 멈추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을 통해 저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시고 그 모든 독한 약물을 몸이 잘 이겨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것처럼 기쁨의 생수와 치료의 묘약을 제 몸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봉사하기 위해 선교회에 들렀더니 권사님이 그동안 수고 많았다면서 “우리 집사님,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 권사님, 지금 생각났는데 제가 하나님을 꼭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저를 붙들고 계셨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저의 심령에 또다시 감사가 넘쳤습니다. 어렵고 힘든 투병의 시간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교구와 구역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으며 도리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여 정기적인 검사만 받으면 되고, 직장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던 저를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질병으로 지치고 고통하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이 힘들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해결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9단원 : 시험을 이기는 성도)

(제40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

- **본문** : 베드로전서 5:8-10
- **요절** :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 5:8-9)
- **찬송** : 394장(새찬송가 354장), 401장(새찬송가 359장)

시험은 비록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다가오지만 믿음 안에서 시험을 잘 극복하면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견디기 어려운 큰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는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간다면 어떠한 시험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극복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1.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 12:2)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지 25년이 나 기다려서 백 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2)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까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준행하기 용이한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번제로 드리기를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삼 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고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여호와와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언약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 22:16~18)는 위대한 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주저 없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줄을 그가 조금도 의심없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히 11:17~19).

**2. 욥은 믿음의 인내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으며, 그 소유물은 양이 칠천이요 약대가 삼천이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 나귀가 오백이며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욥 1:1~3).

그러한 욥에게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열 자녀가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고, 그의 모든 소유가 약탈당하고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이에 욥은 자기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하고(욥 1:21)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온 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생겨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될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그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무서운 재앙에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욥의 아내는 그만 믿음을 상실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또 욥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는 욥의 비참한 형편을 보자 욥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까닭에 재앙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며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과거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세는 후세의 많은 성도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약 5:11)는 말씀은 믿음의 인내가 얼마나 복된 결말을 가져오는지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시험은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 시키시고 큰 복을 받게 하실 목적으로 주시는 시험도 있고,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과 욥의 인내하는 믿음을 본받아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시험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